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⑯ 고려 거사선풍의 출현과 정착



▶ 한줄 요약
선수행이 일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귀족계층에서도 교학불교와 더불어 필수적 수양과목이 되면서 거사선(居士禪)의 선풍으로 전개되었다.

선수행 일반화되고 居士禪으로 전개

한국 선종사에서 신라시대 및 고려 초기는 선법의 수입기 및 정착기에 해당한다. 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선법의 수입은 10세기 말까지는 중국의 선종오가의 전래가 있었고, 아울러 구산문의 형성과 그 전개가 이루어졌다. 그런 까닭에 10세기 말까지는 본격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선법의 수용이라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후 고려시대에는 이것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선법의 전개가 출현하였다. 사굴산문과 가지산문의 전승과 함께 구산문의 면면한 전승, 문자선 및 간화선의 방법을 통한 새로운 선수행법의 도입, 지눌의 저술 및 순수어록의 출현에 따른 선문헌의 본격적인 전개, 선과 교의 관계를 비롯한 원상법(圓相法) 및 조동오위 등 선리에 대한 이해와 재발견, 〈직지심경〉 및 원대 전등사서의 수용에 의거한 전등법맥에 대한 인식의 정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선법의 이와 같은 발전과 더불어 이자현(李資玄)은 재가인의 신분으로 능엄선(楞嚴禪)의 수용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었다.

고려 중기에는 이전 천태종의 개창에 자극을 받아 선종 계통에서도 기존 산문의 성격을 벗어나 하나의 종파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고려 무인정권시대의 출현, 그런 와중에서 출현한 지눌의 역할로 말미암아 한국적인 선사상의 정립과 더불어 새로운 결사운동을 통한 선종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 것이다. 나아가서 지눌에 의한 송대 간화선의 도입은 혜심에 이르러 본격적인 간화선 위주의 선풍을 진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갔던 선법은 일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귀족계층에서도 교학불교와 더불어 수양과목으로서 선수행이 필수적인 교양으로 수용되면서 소위 거사선(居士禪)의 선풍으로 전개되었다. 그 연원은 중국불교에서는 멀리 남북조시대부터 황제 및 귀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왕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식자층의 필수적인 교양 내지 불교신앙의 성격을 지니고 널리 전개되었다.

한국선에서는 고려 중기에 진락공(眞樂公) 청평 거사(淸平居士, 1061~1125)로 불렸던 이자현으로 대표된다. 그는 당시 가지산문의 계승자였던 학일(學一, 1052~1144) 및 탄연(坦然, 1070~1159)을 비롯한 당시의 선승들과 교유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선풍을 다져나갔다. 그 기반은 〈능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능엄선의 흥기와 송대에서 수입된 간화선의 도입이었다. 더욱이 〈금강경〉을 애독하여 금강 거사로 불렸던 이오(李顥, 1050~1110)를 비롯하여 설당 거사(雪堂居士)라 불렸던 김부식(金富軾, 1075~1151)과 그의 동생인 김부철(金富轍) 등은 그 선구적인 사람들에 속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자현은 벼슬을 하다가 그만두고 청평산 문수원에 은거하면서 참선과 경전의 공부로 일관하였다. 그는 일찍이 〈설봉어록(雪峰語錄)〉을 읽고 그 가운데에 "우주법계가 그대로 모두가 눈[眼]인데 그대는 어디에 웅크리고 앉아 있겠는가"라는 대목에 이르러 깨침을 경험하였다. 이후로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의 어록 등 여러 가지 어록과 경전을 애독하였다. 경전으로는 〈능엄경〉을 중시하여 제자들에게도 권장하였는데,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근(根)·식(識) 등 칠대오입(七大悟入)을 통한 망념의 타파를 중시하고 그것을 통한 깨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일체의 존재가 여래장(如來藏) 아님이 없다는 교리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25가지 원통(圓通)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이근원통(耳根圓通)은 이자현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이근원통은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으로서 소위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자성을 다시 돌이켜 관찰하는 수행으로 귀결된다. 원통의 수행법이란 25명의 성인이 각기 자신이 깨친 원통방편에 대하여 설명했을 때, 부처님의 지시를 받아 문수가 차례로 25명의 성인이 진술한 견해에 대하여 그 시비를 평가하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관세음의 이근원통이야말로 최상의 방편이라고 찬탄한다. 25가지 원통은 육진(六塵)과 육근(六根)과 육식(六識)과 칠대(七大)가 원통한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현이 항상 곁에 두고서 좌선수행의 방법으로 닦아갔던 25가지 원통수행이란 〈능엄경〉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육진오입(六塵悟入) 가운데서 성진오입(聲塵悟入)은 교진여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사성제를 깨친 것이다. 색진오입(色塵悟入)은 우파니샤타 곧 진성(塵性)이라는 수행자가 부정관(不淨觀)을 관찰하여 무학도(無學道)를 성취하는 것이다. 향진오입(香塵悟入)은 향엄 동자가 두루 유위(有爲)를 관찰하다가 침수향이 타는 냄새를 통하여 무루지를 얻은 것이다. 미진오입(味塵悟入)은 약왕과 약상이 약초의 맛을 통하여 보살지를 얻은 것이다. 촉진오입(觸塵悟入)은 발타파라 곧 현호(賢護)가 때를 씻는 물을 통하여 무소유의 경지를 얻은 것이다. 법진오입(法塵悟入)은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 등이 육진이 모두 공적한 줄을 터득하여 멸진정(滅盡定)을 얻은 것이다.



춘천시 청평사의 이자현 부도

이자현, 능엄선 수용 안목 보여
좌선 수행을 25 원통으로 닦아
선승 교유로 독자적 선풍 다져
이오 · 김부식 · 김부철 등 부각

육근오입(六根悟入) 가운데서 안근오입(眼根悟入)은 아나율다 곧 무빈(無貧)이 요견조명(樂見照明)의 금강삼매를 통하여 얻은 지혜이다. 비근오입(鼻根悟入)은 주리반특가 곧 단도(繼道)가 출입식을 통하여, 설근오입(舌根悟入)은 교범바제 곧 우가(牛呵)가 혀를 통하여, 신근오입(身根悟入)은 필릉가바차 곧 여습(餘習)이 촉각을 통하여, 의근오입(意根悟入)은 수보리 곧 공생(空生)이 공성(空性)을 통하여 무학위를 얻은 것이다.

육식오입(六識悟入) 가운데서 이식오입(耳識悟入)은 보현보살이 심문(心聞)을 통하여 지혜를 터득한 것이다. 비근오입(鼻識悟入)은 손타라난타가 출입식(出入息)을 통하여 수기(授記)를 받은 것이다. 안식오입(眼識悟入)은 사리불이 심견(心見)을 통하여, 설식오입(舌識悟入)은 부루나미다라니자가 대변재(大辯才)의 음성을 통하여, 신식오입(身識悟入)은 우파리가 청정계율을 통하여, 의식오입(意識悟入)은 대목건련이 신통력을 통하여 아라한을 얻은 것이다.

칠대오입(七大悟入) 가운데서 화대오입(火大悟入)은 오추슬마 곧 화두(火頭)가 화광삼매를 통하여 아라한을 얻은 것이다. 수대오입(水大悟入)은 월광동자 곧 수천(水天)이 수성관법(水性觀法)을 통하여 동진(童眞)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다. 지대오입(地大悟入)은 지지보살이 비사사불을 위하여 땅을 평탄하게 한 수행으로, 풍대오입(風大悟入)은 유리광보살 곧 무량성(無量聲)이 시공을 관찰하여, 공대오입(空大悟入)은 허공장보살이 정광불(定光佛) 밑에서 무변신(無邊身)을 통하여, 식대오입(識大悟入)은 미륵보살 곧 자씨(慈氏)가 식심삼매(識心三昧)를 통하여 무생법인을 얻은 것이다. 근대오입(根大悟入, 見大悟入)은 대세지법왕자 곧 무량광(無量光)이 육근을 통하여 삼매를 터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근원통(耳根圓通)에 대한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이 게송으로 보여준 설법에 잘 드러나 있다.

"그대들이 전도하여 듣는 바탕을 돌이켜서 듣고 있는 자성을 듣는다면[反聞聞自性] 그 자성은 최상의 도를 성취하는데 원통의 경우도 실로 그와 같다. 이것은 바로 미진불이 열반에 들어간 하나의 길이었다. 과거의 모든 여래도 이 반문문자성의 수행으로 이미 성취하였고, 현재의 제보살도 지금 각자 원명한 수행문에 들어가며, 미래의 납자들도 반드시 이 수행법에 의지해야 한다. 나도 또한 이로써 증득하였듯이 관세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처럼 〈능엄경〉의 경문에서도 이근원통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육근오입 가운데서 이근오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중생의 육근 가운데 이근방편(耳根方便)이 가장 뛰어남을 말하여 관세음보살이 원통대사(圓通大士)라 불렸다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다. 이자현은 바로 이 25가지 원통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스스로 수행을 통하여 몸소 깨침을 맛보고 그에 대하여 크게 확신을 지녔다. 이리하여 스스로 〈능엄경〉에 근거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선문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그 수행법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이자현은 입적하는 날까지 몸소 〈능엄경〉을 강의하였다. 특히 왕명을 받들어 행한 〈능엄경〉 법회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몰려들었다고 전한다.

〈능엄경〉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경전으로서 그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 이후로 보인다. 의천은 1085년에 입송하여 화엄종의 대가인 정원(淨源)을 만났다고 한다. 송대에 〈화엄경〉과 〈반야경〉과 〈능엄경〉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기에 능엄대사(楞嚴大師)라 불렸던 장수 자선(長水子璿, 965~1038)에게서 〈능엄경〉을 배운 정원은 〈능엄경〉에 대하여 주석서를 남긴 사람이기도 하다. 이로써 〈능엄경〉의 위상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의천은 그 주석서까지도 널리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으로서 〈능엄경〉은 귀족계층 및 식자층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다. 특히 〈능엄경〉이 지니고 있는 구성의 치밀함과 올바른 수행으로부터 나타나는 수행의 경지 및 잘못된 수행으로부터 나타나는 선병(禪病) 및 그 퇴치방법 등은 어느 경전 못지않게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로서 〈능엄경〉은 선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학을 공부하는 승려 및 사대부 계층에서 넓게 활용되어 사상적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측면에서 제기된 문성(聞性)과 견성(見性)의 문제는 조금이라도 수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였다. 곧 견성은 망심(妄心)을 타파하고 깨침을 얻어가는 입장, 그리고 이와 상대적으로 진심(眞心)을 일깨워 확대해 나아가는 입장 등은 법계 모두가 그대로 깨침의 완성이라는 조사선의 전개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일반 중생들에게는 널리 일체 존재가 여래장 아님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용되기에 충분하였다.

실제로 여래장의 사상까지도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능엄경〉의 입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남이었다. 이자현은 이와 같은 〈능엄경〉 사상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문수원(文殊院)이라는 가람의 형태에 그대로 구현해 두었다. 그리고 스스로 문수원의 구조를 통하여 늘 수행과 깨침과 그 보급에 널리 힘썼다. 이후 혜조국사 담진과 대감국사 탄연 및 권적(權適, 1094~1146) 등도 이자현의 영향을 받았다. 이자현은 자신이 크게 영향을 받은 선의 사상과 수행을 바탕으로 하여 〈추화백약공낙도시(追和百藥公樂道詩)〉·〈선기어록(禪機語錄)〉·〈가송(歌頌)〉·〈포대송(布袋頌)〉 등 다양한 시문집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동국대 HK교수〉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